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 성격특성,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양육행동*

Attachment Experience in Childhoo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 amo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인천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조교수 정윤주

Departmen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University of Incheon
Assistant Professor : Yun Joo Chyu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1) relationships among mothers' attachment experience in childhood, mother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 (2) whether mother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attachment experience in childhood and parenting stress; and (3) whether mother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attachment experience in childhood and parenting behavior. The subjects were 177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and the data were collected with questionnaires. It was found that there are correlations among mothers' attachment experience in childhood, mother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s (autonomy encouragement, and rejection). It was found that mothers' attachment experience in childhood predicts mothers' parenting stress, but the relationship is mediated by mother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It was also found that mothers' attachment experience in childhood predicts mothers' parenting behavior, but the relationship is mediated by mother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주제어(Key Words) : 애착(attachment), 성격특성(personality characteristics), 자녀양육 스트레스(parenting stress),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

Corresponding Author : Yun Joo Chyung, Department of Consumer & Child Studies, University of Incheon, 177 Dohwadong, Namgu, Incheon, 402-749, Korea Tel:+82-32-770-8251 Fax:+82-32-770-8250 E-mail: ychyung@incheon.ac.kr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06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서론

가족은 아동이 출생 후 가장 먼저 접하고 밀접하게 상호 작용 하는 대상으로서 아동발달에서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가족 안에서도 특히 주된 양육자인 어머니가 아동을 대하고 돌보는 방식은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따뜻하며 일관성 있고 연령에 적합한 자율성을 격려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이 정서적으로 안정적이며 자신감 있고 사회적으로도 유능하게 발달해 가도록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채워지지 못한 정서적 욕구와 좌절감으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경험하며 문제행동을 하게 되기도 한다(김원경, 권희경, 전제아, 2006; 이영미, 민하영, 2004; Carson & Parke, 1996; Davies & Cummings, 1994; Steinberg, 2001).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아동의 발달과 적응 양상이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상생활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행동은 어머니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다양성은 어머니, 자녀, 어머니가 처한 상황 요인들에 의해 영향 받는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자녀양육행동은 성, 기질 등의 아동특성, 애착경험, 성격특성 등의 어머니특성, 배우자와의 관계, 직업적 상황, 심리적 지지체계 등의 맥락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Belsky, 1984) 본 연구에서는 자녀양육행동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특성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녀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어머니 특성을 살펴보는 것의 의의는 자녀양육행동을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자녀 중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자녀양육행동 그 자체가 고유의 목적을 지니는 독자적인 행동체계의 하나인 것으로 규정한 자녀양육행동 모델(George & Solomon, 1999)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 모델에서는 자녀양육행동을 아동중심적인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행동을 제공하는 주체인 어머니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볼 필요도 있음을 강조한다. 즉 어머니가 아동기에 양육 받은 경험이 자녀양육이라는 행동에 대한 내적 표상을 형성하고 이것이 이후에 자녀를 양육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어머니의 자녀양육행동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아동기에 경험한 애착을 고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Belsky (1984)는 부모의 성격특성 중 부모 자신의 아동기 경험에 의해 형성된 부분이 자녀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는 자녀양육행동 결정요인의 과정 모델을 제시했으며, Abidin(1992)은 부모 각자가 부모로서의 자

신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동기의 애착경험에서 기인한 내적작동모델의 일부라고 보았다. 즉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아동기에 자신의 부모와 어떤 애착경험을 했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애착이론에 따르면 생애 초기 애착경험의 발달적 결과가 부모가 된 후 자녀양육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데(Bowlby, 1969/1982; Sroufe & Fleeson, 1986, George & Solomon, 1999에서 재인용), 부모와의 애착경험에 의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재화된 기대인 내적작동모델이 형성되어 이것이 이후 대인관계에서의 지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Bretherton, 1985; Main, Kaplan, & Cassidy, 1985).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과 자녀양육행동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부모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자녀양육행동 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를 제시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자녀양육태도를 살펴본 연구(전효정, 2003)에서는 어머니의 애착 안정성이 높을수록 자녀양육에 있어서 일관적인 반응 정도가 높고 거부적 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해결 장면에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보이는 행동을 어머니의 애착 안정성에 따라 비교한 연구(Crowell & Feldman, 1988)에서는 아동기 애착이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 어머니들이 불안정 애착 어머니들에 비해 자녀에게 따뜻하고 지지적이었으며 자녀의 문제해결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과 자녀에 대한 과보호, 권위주의적 통제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곽소현, 김순옥, 2006)에서는 어머니의 애착이 자녀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다른 연구(정혜수, 김광웅, 2001)에서도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이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 중 합리적 지도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한계설정, 애정성, 반응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자녀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어머니의 애착이 자녀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도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이 자녀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변수들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자녀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를 알아봄으로써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이 자녀양육행동과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자료는 어머니들이 자녀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스스로 이해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자녀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로는 어머니의 성격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어머니의 성격특성은 Belsky(1984)의 자녀양육행동 영향 요인에 대한 과정 모델에서도 제시된 바 있는데, 어머니의 성격특성 중 아동기 경험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부분이 자녀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과 성격특성 간의 관계에 대한 근거는 성인의 애착과 성격특성 간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Thomson(1999)은 아동기의 애착이 성격 발달 과정에 작용하며 심리사회적 기능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영아기의 애착유형은 이후의 사회성, 정서적 성향, 호기심, 자존감, 독립성, 협동성, 신뢰 등 성격의 많은 측면을 형성할 수 있다고 했다. 성인 애착 유형과 활동성, 안정성, 지배성, 사려성 등의 성격특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 연구(김광은, 2004)에서도 안정애착 성인이 불안정 애착 성인에 비하여 긍정적인 성격특성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아동기의 애착경험은 성인의 자이존중감 및 자이유능성, 통제소재, 우울, 불안, 개방성, 스트레스 대처 방식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김선희, 오경자, 박종규, 이은정, 2001; 신노라, 안창일, 2004; 정연옥, 이민규, 2005; Collins & Read, 1990; Lyddon & Sherry, 2001; Meyers, 1998) 보고되었다.

성인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성격특성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결과들은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이 현재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녀양육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어머니의 성격특성은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자녀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자녀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두 변수들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부모의 외향성, 불안정한 정서성과 양육행동의 온정 요인, 거부권위주의 요인 간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전현진, 박성연, 1999)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외향성이 높을수록 자녀양육에서 온정성이 높고 거부권위주의 특성은 낮게 나타났으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할수록 온정성은 낮고 거부권위주의적 특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 성격특성과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박영애, 최영희, 박민진, 2002)에서도 어머니의 지배성, 사려성, 사회성, 책임성, 우월성이 높고, 충동성이 낮을수록 양육행동에서 온정수용성이 높고, 어머니가 우월성, 안정성이 낮으며 충동성이 높을수록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안정성, 책임성, 우월성이 낮고 충동성이 높을

수록 방임적이고 허용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자녀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들과 성인의 성격특성이 아동기 애착경험에 의해 영향 받는다는 연구들을 연결 지어 볼 때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자녀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추론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자녀양육행동 간의 관계가 어머니의 성격특성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녀양육행동과 더불어 자녀양육행동에 대한 동기적 요소인 자녀양육스트레스를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자녀양육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경험되며 피할 수 없다는 특성 때문에 부모의 주요한 스트레스 요인이며, 자녀양육행동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Crnic & Acevedo, 1995). 부모가 강한 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부적절한 자녀양육행동을 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예를 들면, 어머니가 스트레스 경험 정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에 대해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숙재, 1997; 안지영, 2001). 또한 자녀양육스트레스는 자녀에 대한 체벌과 같은 강압적인 양육행동과도 관련이 있으며(장희정, 2005) 자녀양육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최형성, 2001) 부모가 자녀에게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할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Abidin(1992)은 부모마다 부모로서의 자신에 대한 내적작동모델이 있는데 이것은 부모 개인의 애착경험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즉 부모들은 부모로서의 자신에 대한 내적작동모델을 통해서 자신이 부모역할을 하면서 부딪히게 될 일들이 어떠한지를 평가해보게 되고 그것이 자녀양육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녀양육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는 부모가 자신의 다양한 자원을 부모역할에 어느 정도 투입할지를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자녀양육스트레스는 자녀양육행동의 심리적 동기가 되며 아동기 애착경험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으로서 자녀양육행동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 자녀양육행동과 더불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자녀양육스트레스와 자녀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어머니의 특성인 아동기 애착경험과 성격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성격특성이 자녀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과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살펴보고, 어머니의 애착경험이 자녀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격특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위에 기술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고찰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성격특성은 자녀양육스트레스 및 자녀양육행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성격특성은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자녀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성격특성은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자녀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에 위치한 어린이집 6곳에 재원 중인 아동의 어머니들이었다. 연구대상을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로 선정한 것은 이 시기가 이후보다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직접적인 양육을 하면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한편 자녀가 어머니로부터의 독립성을 획득해 가기 때문에 자녀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의 문제가 어머니들에게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기인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연구 협조에 동의한 어린이집을 통해 어머니 298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는데 203명으로부터 응답된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그 중에서 응답되지 않은 문항이 있는 질문지를 제외하고 177명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177명의 어머니 중 남아의 어머니가 49.7%(88명), 여아의 어머니가 50.3%(89명)이었고, 어머니의 연령 분포는 20대 9.6%(17명), 30대 82.5%(146명), 40대 5.6%(10명)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 분포는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졸업이 각각 0.6%(1명)이었고, 고졸 59.9%(106명), 전문대졸이 24.9%(35명), 대졸이 17.5%(31명)로 나타났다. 취업 상황은 취업 하지 않은 어머니가 57.1%(101명)이었고, 취업한 어머니가 42.9%(76명)이었다. 가정의 월 평균 소득 분포는 200만원 미만인 32.7%(58명),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32.2%(57명),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19.8%(35명), 400만원 이상이 15.4%(27명)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는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 성격특성, 자녀양육스트레스, 자녀양육행동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1)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은 Hazan과 Shaver(1987)가 개

발한 성인애착척도(Adult Attachment Scale)를 Jeon(1994)이 번안하고 이현미(1997)가 수정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했다. 이 척도는 성인에게 5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기 때 부모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안정적이었는지에 대한 느낌을 묻는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아동기 애착이 안정적이었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를 들면, '나는 어머니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었다.' '나는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어머니와 나누었다.' '나는 어머니가 나를 무시할까봐 걱정했다.' 등이다.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2였다.

2) 어머니의 성격특성

어머니의 성격특성은 성인용 성격 척도(Rohner & Khaleque, 2005)를 본 연구의 연구자가 번안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부정적 자존감, 부정적 자아유능감, 정서적 냉담함, 정서적 불안정, 부정적 세계관, 적대감/공격성, 의존성을 측정하는 7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7개의 하위척도 중에서 아동기에 민감하지 못한 양육을 경험함으로써 자아, 타인, 대인관계에 대해 부정적 심적 표상이 형성된 결과로 나타나는 성격특성으로 보고되어 온(Rohner, 2004) 부정적 자존감, 부정적 자아유능감, 정서적 냉담함, 정서적 불안정, 부정적 세계관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부정적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가치감이 낮고 자신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정도, 부정적 자아유능감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대처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정서적 냉담함은 타인의 정서적 요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 정서적 불안정은 주변의 자극에 의해 정서적인 안정을 잃는 정도, 부정적 세계관은 세상 전반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는 것이다.

5개 하위척도는 각각 9문항으로 이루어져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어머니 성격특성은 총 4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이 척도들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지각이 부정적이며 정서적으로 차갑고 불안정하고 세상을 전반적으로 불신하며 부정적으로 보는 등 부정적인 성격특성이 강함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쉽게 당황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친한 관계 맺는 것을 회피한다', '내가 보기에 이 세상은 좋고 행복한 곳이다', '나는 뜻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어도 화내지 않고 견딜 수 있다', '나는 내가 거의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느낀다' 등이다.

각 하위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부정적 자존감 척도가 .77, 부정적 자아유

능감 척도가 .75, 정서적 냉담함 척도가 .73, 정서적 불안정 척도가 .70, 부정적 세계관 척도가 .61이었고, 이들 하위척도 문항을 모두 합한 45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1이었다.

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김기현, 강희경(1997)이 개발한 양육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했다. 이 척도는 일상적 양육스트레스,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을 측정하는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하위척도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어머니들이 응답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된 일상적 양육스트레스와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하위척도를 사용하여 자녀양육스트레스를 측정했다.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를 양육해야 하므로 개인적인 일에 대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정도를 측정하며,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은 부모로서의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각 하위척도는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함을 의미한다.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 하위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0,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하위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는 .86이었으며, 척도 문항 전체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2이었다. 문항의 예를 들면, '아이 때문에 항상 마음에 여유가 없다',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때가 있다' 등이다.

4)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통제, 방임적 허용, 자율격려, 거부방임의 측면을 측정하였다. 통제, 방임적 허용, 자율격려는 안지영(2001)이 개발한 어머니의 일반적 양육행동 척도 중 통제를 측정하는 3문항, 방임적 허용을 측정하는 6문항, 자율격려를 측정하는 8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했다.

통제는 자녀를 부모의 뜻에 일반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정도, 방임적 허용은 훈육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정도, 자율격려는 자녀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자녀가 스스로 경험해 보도록 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통제, 방임적 허용, 자율격려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함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나는 아이에게 어떤 일을 지시할 때가 많다', '나는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편이다', '나는 아이가 부모에게 화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등이다. 각 척도를 구

성하는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통제가 .54로 낮게 나타났고, 방임적 허용이 .74, 자율격려가 .65였다.

거부방임은 박주희(2000)가 개발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중 거부방임을 측정하는 8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했다. 이 척도는 자녀에 대해 애정표현을 하지 않거나 자녀의 정서적 요구에 대해 수용 하지 않는 정도를 알아보는 것으로서 훈육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한 훈육을 하지 않는 정도를 측정하는 안지영(2001) 척도의 방임적 허용과는 구분 된다.

또한 186개 사회의 자녀양육행동을 분석한 Rohner & Rohner(1981, 김미성, 전귀연, 2003에서 재인용)의 연구결과에서는 수용-거부와 통제의 2개 차원이 자녀양육행동의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고 이와 유사하게 이숙(1988)의 연구에서도 온정과 거부·권위주의의 2개 요인이 자녀양육행동의 주요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또한 박성연(1989)의 연구결과에서도 자녀의 정서적 요구에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는 적대 차원이 주요 요인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거부방임을 자녀양육행동을 측정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하위척도의 하나로 포함시켰다.

거부방임 척도도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거부방임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의미이다.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나는 자녀양육이 즐겁기보다는 부담스럽다', '나는 아이가 놀아달라고 하면 다른 일을 핑계로 혼자 놀게 한다' 등이다. 거부방임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0이었다.

3. 연구 절차 및 분석 방법

1) 연구절차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수도권 소재 어린이집 여섯 곳에 재원 중인 아동의 어머니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수집하였다. 연구자가 조사 대상 어린이집 시설장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 조사 협조를 구한 후 아동을 통해 어머니에게 질문지를 전달하였고 교사의 도움을 받아 응답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배부되었던 298부의 질문지 중에서 203부가 회수되었는데 그 중에서 모든 문항에 대해 빠짐없이 응답된 것만을 선별하여 177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했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들 간의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연구결과를 연구문제 별로 제시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수	평균	표준편차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	76.30	17.47
부정적 자존감	19.37	3.68
부정적 자아유능감	19.41	4.32
정서적 냉담함	18.24	4.12
정서적 불안정	21.00	3.84
부정적 세계관	20.46	3.44
자녀양육스트레스	64.37	14.54
통제 양육행동	7.81	1.46
방임적 허용 양육행동	9.91	2.34
자율격려 양육행동	19.31	2.69
거부방임 양육행동	18.36	3.12

연구문제 별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 성격특성과 자녀양육스트레스 및 자녀양육행동 간의 관계

1)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자녀양육스트레스 및 자녀양육행동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자녀양육스트레스 및 자녀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및 자녀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r)

	자녀양육 스트레스		자녀양육행동			
	일상적 스트레레스	부모 역할 부담감	통제	방임적 허용	자율 격려	거부 방임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	-.18*	-.32**	-.004	-.03	.25**	-.21**

* $p < .05$. ** $p < .01$.

분석 결과,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과 자녀양육에 대한 일상적 스트레스 및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간의 관계는 모두 각각 의미 있는 부적 상관관계($r = -.18, p < .05$; $r = -.32, p < .01$)를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자녀양육으로 인해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가 낮았고, 부모

역할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자녀양육행동 간의 관계는 일부의 자녀양육행동 변수와의 관계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애착경험과 자율격려 양육행동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 = .25, p < .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애착경험과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r = -.21, p < .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제와 방임적 허용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자녀양육에서 자율격려 행동을 많이 하고, 거부방임 행동은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성격특성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성격특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성격특성 간의 상관관계(r)

	성격특성				
	부정적 자존감	부정적 자아 유능감	정서적 냉담함	정서적 불안정	부정적 세계관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	-.34**	-.30**	-.37**	-.27**	-.36**

** $p < .01$.

분석 결과,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은 부정적 자존감($r = -.34, p < .01$), 부정적 자아유능감($r = -.30, p < .01$), 정서적 냉담함($r = -.37, p < .01$), 정서적 불안정($r = -.27, p < .01$), 부정적 세계관($r = -.36, p < .01$)과 모두 각각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있으며 정서적인 반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고 외부적인 변화에 의해 정서적으로 동요되지 않으며 세상에 대해 대체로 신뢰하며 긍정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자녀양육스트레스 및 자녀양육행동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자녀양육스트레스 및 자녀양육행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분석 결과, 어머니의 성격특성 변수인 부정적 자존감, 부

〈표 4〉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및 자녀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r)

	자녀양육스트레스		자녀양육행동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역할 부담감	통제	방임적 허용	자율격려	거부방임	
어머니의 성격특성	부정적 자존감	.17*	.40**	.16*	.24**	-.26**	.43**
	부정적 자아 유능감	.16*	.42**	.07	.16*	-.28**	.45**
	정서적 냉담함	.29**	.37**	.02	.23**	-.26**	.41**
	정서적 불안정	.32**	.33**	.07	.11	-.33**	.41**
	부정적세계관	.25**	.36**	.002	.03	-.13	.34**

* $p < .05$. ** $p < .01$.

정적 자아유능성, 정서적 냉담함, 정서적 불안정, 부정적 세계관 모두 자녀양육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r = .17, p < .05$; $r = .16, p < .05$; $r = .29, p < .01$; $r = .32, p < .01$; $r = .25, p < .01$) 및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r = .40, p < .01$; $r = .42, p < .01$; $r = .37, p < .01$; $r = .33, p < .01$; $r = .36, p < .01$)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자녀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성격특성 중 부정적 자존감은 통제($r = .16, p < .05$), 방임적 허용($r = .24, p < .01$), 자율격려($r = -.26, p < .01$), 거부방임($r = .43, p < .01$)과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어머니의 부정적 자아유능감은 자녀양육행동 변수 중에서 방임적 허용($r = .16, p < .05$), 자율격려($r = -.28, p < .01$), 거부방임($r = .45, p < .01$) 양육행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통제와는 의미 있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정서적 냉담함도 방임적 허용($r = .23, p < .01$), 자율격려($r = -.26, p < .01$), 거부방임($r = .41, p < .01$) 양육행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통제와는 의미 있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정은 자율격려($r = -.33, p < .01$), 거부방임($r = .41, p < .01$) 양육행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통제, 허용적 방임과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부정적 세계관은 거부방임($r = .34, p < .01$) 양육행동과만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제, 허용적 방임, 자율격려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자녀양육스트레스 및 자녀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어머니가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적을수록, 정서적 반응이 요구될 때 그러한 반응을 보이기 어려울수록,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낮을수록, 세상에 대해 신뢰가 적고 부정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을수록 자녀양육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며 부모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심리적인 부담감을 더 많이 가지게 되며, 방임하거나 거부하는 식의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반면 자녀의 뜻을 이해하고

격려해 주는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더 적게 보임을 나타낸다.

2.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 성격특성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자녀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3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이 자녀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이 분석의 1단계와 3단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성격특성은 어머니의 성격특성 하위변수들(부정적 자존감, 부정적 자아유능성, 정서적 냉담함, 정서적 불안정, 부정적 세계관)의 점수를 모두 더한 총점을 사용했다. 자녀양육스트레스도 일상적 자녀양육스트레스 척도 점수와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척도 점수를 더한 총점을 사용했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이 종속변수인 자녀양육스트레스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을 독립변수로 하고 자녀양육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이 매개변수인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을 독립변수로 하고 어머니의 성격특성을 종속변수로 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독자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어머니의 성격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자녀양육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하는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단계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1단계 분석에서는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이 종속변수인 자녀양육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예측($\beta = -.27, p < .01$)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단계 분석에서는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이 매개변수인 어머니의 성격특성을 유의미하게 예측($\beta = -.41, p < .0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애착경험을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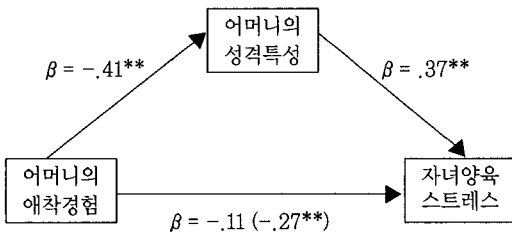
〈표 5〉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자녀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 성격특성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F
	B	β	
1단계	자녀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애착경험	-.22	-.27**	.07
2단계	어머니의 성격특성		
어머니의 애착경험	-.36	-.41**	.17
3단계	자녀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애착경험	-.10	-.11	.19
어머니의 성격특성	.35	.37**	20.07**

**p < .01.

인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자녀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3단계 분석에서는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은 자녀양육스트레스를 의미 있게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 = -.11, n.s.$), 어머니의 성격특성만 자녀양육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beta = .37, p < .01$)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의 1단계와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애착경험이 자녀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정도를 비교한 결과, 1단계에서는 유의미한 독립변수였던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이 3단계에서는 더 이상 유의미한 독립변수가 아니었다. 즉 어머니의 애착경험은 자녀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변수이지만 이 관계는 매개변수인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작용하고 있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자녀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성격특성의 매개효과 분석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주. 괄호 안은 매개변수 투입 전의 회귀계수임.
**p < .01.

〈그림 1〉 어머니의 애착경험과 자녀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성격특성의 매개효과

3.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 성격특성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자녀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녀양육스트레스에 관한 매개효과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Barron과 Kenney(1986)가 제시한 절차를 적용하였다. 이 분석에서도 어머니의 성격특성은 하위변수의 점수를 모두 더한 성격특성 총점을 사용했으며 자녀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자율격려와 거부방임 양육행동만을 살펴보았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이 종속변수인 자녀양육행동(자율격려, 거부방임)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을 독립변수로 하고 자녀양육행동(자율격려, 거부방임)을 종속변수로 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이 매개변수인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을 독립변수로 하고 어머니의 성격특성을 종속변수로 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가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통제된 상태에서 종속변수에 독자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어머니의 성격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자녀양육행동(자율격려, 거부방임)을 종속변수로 하는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단계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 6〉와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6〉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자녀양육행동(자율격려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 성격특성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F
	B	β	
1단계	자율격려 양육행동		
어머니의 애착경험	-.04	.25**	.06
2단계	어머니의 성격특성		
어머니의 애착경험	-.36	-.41**	.17
3단계	자율격려 양육행동		
어머니의 애착경험	.02	.15	.12
어머니의 성격특성	-.05	-.26**	11.91**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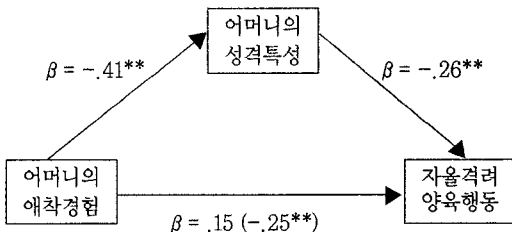
〈표 7〉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자녀양육행동(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 성격특성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F
	B	β	
1단계	거부방임 양육행동		
어머니의 애착경험	-.04	-.21**	.04
2단계	어머니의 성격특성		
어머니의 애착경험	-.36	-.41**	.17
3단계	거부방임 양육행동		
어머니의 애착경험	.000	.001	.26
어머니의 성격특성	.10	.51**	30.97**

**p < .01.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자율격려양육행동 간의 관계가 어머니의 성격특성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결과,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이 종속변수인 자율격려 양육행동을 유의미하게 예측($\beta = .25, p < .01$)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단계 분석에서는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이 매개변수인 어머니의 성격특성을 유의미하게 예측($\beta = -.41, p < .0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애착경험을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자율격려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3단계 분석에서는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이 자율격려 양육행동을 의미 있게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 = .15, n.s.$), 어머니의 성격특성만 자율격려어머니의 애착경험 어머니의 성격특성자율격려 양육행동 양육행동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beta = -.26, p < .01$)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의 1단계와 3단계 간에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애착경험이 자율격려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정도가 다른지를 살펴본 결과, 1단계에서는 유의미한 독립변수였던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이 3단계에서는 더 이상 유의미한 독립변수가 아니었다. 즉 어머니의 애착경험은 자율격려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변수이지만 이 관계는 매개변수인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작용하고 있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분석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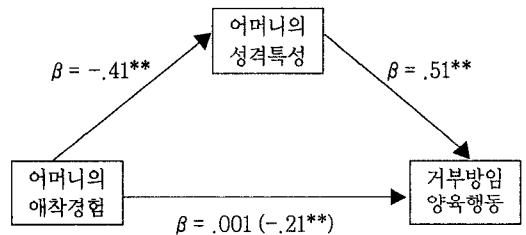
주. 괄호 안은 매개변수 투입 전의 회귀계수임.
** $p < .01$.

<그림 2> 어머니의 애착경험과 자율격려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성격특성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관계가 어머니의 성격특성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결과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이 종속변수인 거부방임 양육행동을 유의미하게 예측($\beta = -.21, p < .01$)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단계 분석결과는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이 매개변수인 어머니의 성격특성을 유의미하게 예측($\beta = -.41, p < .0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어머니의 애착경험을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

변수인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거부방임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이 거부방임 양육행동을 의미 있게 예측하지 않으며($\beta = .001, n.s.$), 어머니의 성격특성만 거부방임 양육행동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beta = .51, p < .01$)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의 1단계와 3단계 간에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애착경험이 거부방임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1단계에서는 유의미한 독립변수였던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이 3단계에서는 더 이상 유의미한 독립변수가 아니었다. 즉 어머니의 애착경험은 거부방임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변수이지만 이 관계는 매개변수인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작용하고 있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분석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주. 괄호 안은 매개변수 투입 전의 회귀계수임.
** $p < .01$.

<그림 3> 어머니의 애착경험과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성격특성의 매개효과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성격특성이 자녀양육스트레스 및 자녀양육행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자녀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 및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자녀양육행동 간의 관계가 어머니의 성격특성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은 일상적인 자녀양육스트레스 및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과 모두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는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아동기에 형성했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하고, 부모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적게 느낀다는 의미이다. 이와 유사하게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자녀양육행동 간에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이 안정적일수록 자율격려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며 거부방임 양육행동은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자녀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난 것은 아동기의 부모와의

경험이 부모, 자녀의 역할에 대한 내적 표상을 형성하게 하고 성인이 되어 자녀를 두게 되었을 때 부모로서의 자아를 인식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려는 심리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애착이론의 원리(George & Solomon, 1999)에 포함된다.

이 결과는 또한 성인애착 유형을 자아상과 타인상에 따라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애착모델을 통해서도 설명해 볼 수 있다. 즉 아동기의 애착경험이 안정적인 어머니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자신과 자녀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며 자녀가 자신의 행동이나 요구에 반응적일 것으로 기대하므로 자녀와의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따라서 아동기 애착이 안정적인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 어머니에 비하여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자녀를 대할 수 있을 것이고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는데 동반될 수 있는 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기 애착경험이 안정적일수록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로서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자녀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하며 자녀의 뜻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결과를 선행연구들과 비교해보면, 어머니의 안정애착이 부정적인 자녀양육행동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긍정적인 자녀양육행동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던 선행연구(전효정, 2003, 정혜승, 김광웅, 2001; Crowell & Feldman, 1988)들과 같은 패턴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은 통제 양육행동, 방임적 허용 양육행동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 결과는 어머니의 부모에 대한 애착표상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고찰했던 연구(박성연, 임희수, 2000)에서 통제가 어머니의 애착표상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통제 양육행동은 자녀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지시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며 방임적 허용은 자녀의 부적절한 행동을 묵인하며 필요한 훈육도 하지 않는 양육행동으로서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이 이들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다만, 통제적 양육행동은 척도의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그것이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성격특성 간의 관계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성인의 애착과 성격특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신노라, 안창일, 2004; 최해림, 2005; Collins & Read, 1990; Thompson, 1999)의 결과와 일치된다. 즉 어머니가 아동기에 자신의 어머니와 안정적 애착을 형성한 경험은 자신과 타인,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 세상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지니는데 영향을 미치며 그런 시각을 지닌 상태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그것이 일상적인

사건들을 지각하고 해석하고 느끼고 대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자녀양육스트레스 및 자녀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는 어머니가 부정적인 성격특성을 많이 지니고 있을수록 자녀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며 통제, 방임, 거부 등 부적절한 자녀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자율격려와 같은 긍정적인 자녀양육행동은 더 적게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어머니의 부정적 자존감, 부정적 자아유능감은 어머니가 부모로서의 자기확신을 갖기 어렵게 하고 자녀양육에 대해 효능감을 갖기 어렵게 함으로써 자녀와의 관계에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무기력감을 느끼고 회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부모로서의 효능감 부족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를 일방적인 방식으로 통제하려 하거나 자녀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도 필요한 훈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모가 자녀양육에 있어서 자신의 통제력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자녀에 대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Guzell & Vernon-Feagans, 2004)의 결과와도 연결 지어 해석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성격특성으로서 부정적 자아상은 자녀양육 과정에서의 자신감 부족으로 나타남으로써 적절한 양육행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어머니의 정서적 냉담함은 자녀가 정서적 지원을 필요로 할 때 그러한 필요를 채워주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어머니 자신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것은 자신에게 심리적 에너지를 집중하게 함으로써 자녀양육에 헌신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감소하는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우울이나 불안 증상 또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자녀양육행동을 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의 결과들(Bettes, 1988; Crnic & Acevedo, 1995)과 일관되는 경향을 보인다.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자녀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이 자녀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것은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이 어머니의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자녀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 결과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성격특성은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자녀양육행동 간의 관계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은 자녀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이 어머니의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성격특

성이 자녀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자녀양육행동 간의 관계가 어머니의 성격특성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난 분석결과는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이 자녀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박소현, 김순옥(2006)의 연구와 같은 유형의 결과이다. 이 결과는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이 어머니 성격의 어떤 부분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자녀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던 Belsky(1984)의 모델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이 어머니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자녀와의 관계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즉 어머니들의 자녀양육행동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은 자녀의 특성이나 어머니가 처한 맥락의 특성 등 현재의 조건들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성장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부모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즉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이나 자녀를 대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부모가 자신의 아동기 경험과 부모로서의 자신의 모습 간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애착이 안정적인 정도만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애착 유형에 따른 성격특성의 차이나 자녀양육행동의 차이를 고찰할 수 없었다. 또한 자녀양육경험을 통해 어머니 자신의 아동기 애착에 대한 지각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통계 장치가 없었다.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을 다루고 있으나 어머니의 아동기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제한점이다.

또한 자녀양육행동을 측정하는데 사용했던 척도 중 통제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가 .54로 낮게 나타난 점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 척도가 개발된 연구(안지영, 2001)에서는 내적합치도가 .61로서 높지는 않지만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이 척도를 사용한 또 다른 연구(박성연, 임희수, 2000)에서는 .50으로 낮게 나타나기도 했다. 신뢰도가 낮은 척도를 사용한 것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이상의 제한점에 대한 보완을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을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에 따라 자녀양육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

고 자녀의 특성을 연구 모델에 포함시킴으로써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에 대한 지각이 자녀양육 경험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아동기 인구학적 배경을 알아보아 연구결과 해석에 참고함으로써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결과 이해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이 있으나 본 연구는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이 자녀양육스트레스와 자녀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아동기 애착경험이 자녀양육 과정에서 어머니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 점이다. 부모교육에서 이러한 내용을 다룸으로써 어머니들이 아동기의 경험과 부모로서의 현재 자신의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통찰을 가지게 된다면 양육행동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절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박소현, 김순옥(2006).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 정서,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경로모형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6), 95-116.
- 김광은(2004). 성인 애착 유형과 요인에 따른 성격 특성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53-69.
- 김기현, 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미성, 전귀연(200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1(12), 207-228.
- 김선희, 오경자, 박중규, 이은정(2001). 애착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인지적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1), 105-119.
- 김원경, 권희경, 전제아(2006). 부모양육행동, 아동의 우울 및 자기효능감과 아동의 문제해결력 간의 구조모델. **아동학회지**, 27(3), 67-79.
- 박성연(1989).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개발에 관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4), 151-165.
- 박성연, 임희수(2000). 2~3세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변인들: 부모에 대한 애착표상 및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1(1), 59-72.
- 박영애, 최영희, 박인전(2002).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 지각 차이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3(2), 71-88.
- 박주희(2000). 아동의 또래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노라, 안창일(2004). 성인 애착 유형과 자기개념, 효능감, 대처양식, 사회적 지지 수준과 대인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4), 949-968.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안지영(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양육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숙(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미, 민하영(2004).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학교적응에 따른 아동의 우울성향. **대한가정학회지**, 42(4), 1-10.
- 이현미(1997). 어머니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아동의 애착 안정성.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희정(2005). 체벌에 대한 신념과 양육스트레스가 체벌행동을 매개로 아동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모의 양육효능감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현진, 박성연(1999).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3), 153-169.
- 전효정(2003). 어머니-유아 애착의 세대간 전이의 메커니즘: 어머니의 내적실행모델과 자녀양육행동이 유아의 애착유형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8(3), 159-174.
- 정연옥, 이민규(2005). 성인기 애착유형, 부정적 인지 왜곡 및 우울수준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4(1), 167-184.
- 정혜승, 김광웅(2001). 어머니 자신의 부모 애착 및 양육행동과 자녀 애착과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4(1), 95-105.
- 최해립(2005). 부모애착, 자동적 사고, 성역할정체감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599-616.
- 최형성(2001).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bidin, R. R.(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 407-412.
- Bar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noit, D., & Parker, K.(1994). Stability and transmission of attachment across three generations. *Child Development*, 65, 1444-1456.
- Bettes, B. A.(1988). Maternal depression and motherese: Temporal and intonational features. *Child Development*, 59, 1089-1096.
- Bowlby, J.(1969/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retherton, I.(1985). Attachment theory: Retrospect and prospect.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in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2-35.
- Carson, L., & Parke, R.(1996). Reciprocal negative affect in parent-child interactions and children's peer competency. *Child Development*, 67, 1281-1321.
- Collins, N. L., & Read, S. J.(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Cnic, K., & Acevedo, M.(1995). Everyday stresses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4. Applied and practical parenting* (pp. 277-297). Hillsdale, NJ: Erlbaum.
- Crowell, J. A., & Feldman, S.(1988). Mothers' internal models of relationships and children's behavioral and developmental status: a study of mother-child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59, 1273-1285.
- Davie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574-582.
- Fonagy, P., Steele, H., & Steele, M. (1991). Maternal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during pregnancy predict the organization of infant-mother attachment at one year of age. *Child Development*, 62, 891-905.
- George, C., & Solomon, J.(1999). Attachment and caregiving. In J. Cassidy, and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pp. 649-670). New York: Guilford Press.
- Guzell, J., & Vernon-Feagans, L. (2004). Parental perceived control over caregiving and its relationship to parent - infant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75, 134-146.
- Hazan, C., & Shaver, P.(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Jeon, H.(1994). *Conflict resolution and marital adjustment in Korean couples: Influences of attachment style, marital comparison, and motivati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 Lyddon, W. J., & Sherry, A.(2001). Developmental personality styles: an attachment theory conceptualization of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9, 405-414.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Waters (Eds.), *Growing points in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66-104.
- Meyers, S. A.(1998). Personality correlates of adult attachment style.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8, 407-409.
- Rohner, R. P.(2004). The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syndrome: Universal correlates of perceived rejection. *American Psychologist*, 59, 827-840.
- Rohner, R. P., & Khaleque, A.(2005). Personality assessment questionnaire (PAQ): Test manual. In R. P. Rohner & A. Khaleque (Eds.),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4th ed., pp.187-226). Storrs, CT: Rohner Research Publications.
- Rohner, R. P., & Rohner, E. C.(1981). Parental acceptance 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Cross-cultural codes. *Ethnology*, 20, 245-260.
- Sroufe, L. A., & Fleeson, J.(1986). Attachment and the construction of relationships. In . Hartup & Z. Rubin (Eds.), *The nature and development of relationships* (pp. 51-71). Hillsdale, NJ: Earlbaum.
- Steinberg, L.(2001). We know some things: Adolescent-parent relationships in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1, 1-20.
- Thompson, R. A.(1999). Early attachment and later development. In J. Cassidy & P.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pp. 265-286). New York: Guilford.
- Ward, M. J., & Carlson, E. A.(1995). The predictive validity of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for adolescent mothers. *Child Development*, 66, 69-79.

(2008년 1월 31일 접수, 2008년 3월 10일 채택)